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시설·안전 전담체계 구축... 연 60~100억 절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교육시설 관리단 설립 공약을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학생 수 감소와 노후시설 증가로 인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 산하 출연기관 형태의 통합 관리 조직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설·안전·에너지 관리를 전문기관이 맡고,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데 있다

그는 “그동안 교사와 행정실이 시설 민원과 공사 관리까지 떠안아 온 것은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며 “시설과 에너지, 안전을 통합 관리하는 허브를 구축해 교육 정책 전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학생 수는 2020년 21만명대에서 2030년 13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노후 학교시설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학교별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 24시간 긴급출동 및 유지보수, 전문 인력의 정밀 점검, 시설 개방에 따른 민원과 보안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약은 예산 절감 효과에도 초점을 맞췄다. 시설 보수 주기 통합 관리와 대규모 발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연간 60억~1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비후보는 “절감된 재원은 학교 안전 강화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는 수업 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관리단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로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해 2단계 350개교, 이후 전 학교로 확대하는 3단계 로드맵이 제시됐다. 본부는 기획·안전·에너지·디지털 분야를 담당하고, 시군 단위에는 권역별 시설 관리센터를 두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학교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관리단이 보안과 시설 운영을 맡아 학교 개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투자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전환해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순창 장애학생 통학버스 지원 약속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순창 장애인연합회와 간담회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순창 지역 장애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복지 확대 의지를 밝혔다

천 후보는 지난 22일 순창군 장애인연합회(회장 김종태) 임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학생 지원 방안과 교육 환경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순창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입학 수요가 적어 인근 남원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으며,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확대, 한글 미해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체육행사 등 지역 내 장애인 관련 활동에 대한

를 위해 통학버스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 이해 교

사회의 함께 참여하는 장애 이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천 후보는 “통학버스 지원과 장애 이해 교육, 직업교육 강화 등은 장애학생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부분과 지자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소규모 유치원 교육력 강화

전북교육청, 한울타리유치원과 공동교육과정 확대·운영 작년 16개 유치원에서 올해 41개로 늘어... 현장 중심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협력 중심 교육모델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한울타리유치원’과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치원 간 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들에게 또래와 함께 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울타리유치원’은 중심 유치원 1곳과 협력 유치원 2~3곳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로 ‘거점형’과 ‘공동·연계형’으로 나뉜다. 거점형은 중심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연계형은 교육활동과 체험학습, 각종 행사를 함께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올해 한울타리유치원은 거점형 3개 유치원(1개 팀)과 공동·연계형 10개 유치원(3개 팀)으로 운영되며, 지난해보다 참여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전북교육청은 통학버스 지원과 함께 거점형 중심 유치원의 시설 환경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6개 유치원(5개 팀)에서 올해는 41개 유치원(13개 팀)으로 늘어나며,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시설 공유, 교사 간 수업 사례 공유 등을 위한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정기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운영 나눔의 날’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모델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상상 방안”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통학버스 지원과 함께 거점형 중심 유치원의 시설 환경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6개 유치원(5개 팀)에서 올해는 41개 유치원(13개 팀)으로 늘어나며,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시설 공유, 교사 간 수업 사례 공유 등을 위한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정기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운영 나눔의 날’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소규모 유치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모델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상상 방안”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6개 유치원(5개 팀)에서 올해는 41개 유치원(13개 팀)으로 늘어나며, 교육과정 공동 운영과 시설 공유, 교사 간 수업 사례 공유 등을 위한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북교육청은 정기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운영 나눔의 날’을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민원대응 강화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감과 사립유치원장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대응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기 초부터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9월에 진행되던 설명회를 4월로 앞당기고, 참석 대상은 사립유치원장까지 확대해 정책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비롯해 교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학교 민원 대응 체계 및 관리자 역할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됐다. 이를 통해 교감과 유치원장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전북교육청은 갈등 해결을 넘어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는 ‘희망 중심’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시스템 운영, 교원 안심전화 서비스 지원,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 등 기관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원을 위한 자유 및 휴 프로그램 운영에 진단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학기 초부터 촘촘히 구축하고,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23일 고창초등학교를 방문한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가 권한대행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만나 학교 운영 현황을 듣고 있다.

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교육 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고창초 방문... 돌봄학교 운영 점검 3학년 확대 맞춰 현장 확인... 지역사회 협력 기반 강화 강조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돌봄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 권한대행은 23일 고창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학교 운영 현황을 살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돌봄학교 이음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운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 권한대행은 먼저 학교 내 “돌봄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해당 협의체는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핵심 기구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이어 새롭게 확대된 3학년 대상 돌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참여 학생 수와 프로그램 다양성, 방과 후 활동 공간 확보 여부 등을 살피며 학년 확대에 따른 질 높은 프

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내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둘러보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운영 실적과 향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돌봄학교 정착을 위해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지역 교육 자원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 권한대행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밀착형 모델을 확산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현업업무종사자 건강 보호 산재 예방 강화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월까지 총 20회 걸쳐 현장 방문... 건강 상태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23일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보건의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건강상담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근로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각 현장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상담에서는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자율신경분석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건

관관리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예방 교육과 함께 요가, 씨름 등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해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같은 예방 중심 정책은 실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 이후 관련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024년 11명에서 2025년 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과 예방 프로그램이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산업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산업 안전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온기’

두재균 이사장,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 위해 성금 기탁

전북 교육 발전과 청소년 지원을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아름다운공동체가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한국아름다운공동체는 교육 현장의 현안을 조망하는 활동에서 나아가 최근 청소년 복지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아름다운 교육공동체’를 제정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직원들을 발굴·

시상해 왔다.

지난해 공식 출범 이후에는 교원 회복과 교직원 치유를 위한 ‘교직원 힐링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등 활동을 체계화했다. 또한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중심으로 봉사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교육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봉사 현장은 단순한 금식 지원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봉사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년들은 식사와 함께 공연과 체험활동을 즐기며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이 가운데 초대 이사장인 두재균 전북대학교 총장이 ‘청소년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기탁은 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사례로 단체의 방향성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두재균 이사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를 통해 희망을 느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번 기탁 역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한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실천이 이어질수록 전북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상근 기자